**[대성 셀틱에너시스]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R&D**

**1. 지원동기와 포부**

제가 공부하던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는 통신, 제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반도체관련 부분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관련 과목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과목만 치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통신, 제어분야 과목들도 두루두루 수강했습니다.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하드웨어를 제작하거나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한 대성셀틱에너시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성격의 장단점과 생활신조**

저의 성격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모임, 동아리 등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베디드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은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 시계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든 팀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장점을 알고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각의 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나누었고, 끝없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저의 성격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모임, 동아리 등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베디드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은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 시계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든 팀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장점을 알고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각의 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나누었고, 끝없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3. 경력 및 특기사항**

[대학생활 2년의 경험]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엔지니어로써 필요한 덕목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학교 3~4학년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는 SOC로봇워(휴로부분)라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C언어 문법만 알고 있었던 사람에서 C, C++, MFC, 영상처리까지 공부를 하였고, 대회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고생하며 오직 어떻게 하면 로봇이 더 빠르게 주변 판단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노력과 운이 더해서 2년 동안 저와 학술동아리(충북대 전자공학부 RFIC) 모두 발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ATmega를 이용한 프로젝트와 졸업 작품]

ATmega라는 8Bit MCU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언어 쪽만 알고 있던 저에게는 MCU를 통해서 나의 코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MCU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인 1개조로 구성하였고, 여러 의논 끝에 ‘잔상효과LED-자전거바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개의 ATmega128을 Bluetooth통신을 이용해서 페어링을 시키고, 단방향 통신을 이용해서 자전거뒷바퀴의 원하는 잔상효과를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같이 팀을 했던 동생과 같이 졸업 작품을 ATmega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시간이 생기는 데로 틈틈이 구상을 하고 ‘스마트체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8개의 무게센서를 방석 안에 넣고 사람의 엉덩이의 무게를 각 셀별로 측정하여 무게분포를 판단하고 이를 시리얼통신을 통해 PC로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2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ATmega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직접 알 수 있었습니다.

**4. 대성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대성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가스보일러의 선두주자로써 어릴 적 추운 겨울날 보일러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